



2024년 1월 7일(제1175호) 주님 공헌 대축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하늘의 뜻을 찾고자 떠난 동방박사들”

오늘은 주님 공헌 대축일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주님의 탄생이 세상에 퍼져 나가게 된 날입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인 동방박사들에게도 이 기쁜 순간이 전해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성경 말씀 안에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찾는 과정이 너무 인상 깊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렇기에 제 사제서품 성구와 그림을 동방박사들을 떠올리며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 서품 성구는 시편 제8편 4절에 ‘우러러 당신의 하늘을 바라봅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상본의 그림은 보랏빛 밤하늘에 별이 떠 있고, 그 아래 구유가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모습은 하느님을 알고자, 더욱 깊이 만나고자,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 살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별들보다 크고 빛나는 별을 보며 여정을 처음 떠났을 때에는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하였겠지만, 점점 그들은 불안과 초조함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 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순간보다 기쁘고 값진 행복함을 얻었음이 분명합니다. 동방박사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직 몰랐을 때와 알게 되었을 때의 마음을 잘 드러내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묵상하며, 하느님을 알게 된 그 순간을 깊이 새기고, 그 감사함을 잘 간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각자가 마련한 선물을 예수님께 드렸지요. 반면, 목동

들은 탄생하신 분이 구세주이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특별한 무엇인가를 선물로 드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 떼를 지키던 이들이 큰 무엇인가를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천사의 소식을 전해 듣고 서둘러 베들레헴으로 향했기 때문에 선물을 준비할 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모님과 요셉 성인께, 천사의 발현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위대하신 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하느님께 찬양을 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느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소식을 전하고, 당신의 탄생을 곁에서 함께 지켜봐 준다는 것만으로도 예수님께 기쁨의 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마음을 각자의 위치에서 무엇인가로 표현해 드리면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낮추시어, 우리가 당신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도움을 기꺼이 받고자 하시는 그분을 도와드리고 맞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소박할지라도, 동방박사들과 목동들처럼 자신의 처지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정성을 드리도록 합시다. 우리 삶의 끝이며 새로운 시작인, 하느님 나라로 향하는 그 행복의 여정에 언제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심신희(로마스) 신부  
총혜(육군 제22보병사단) 성당 주임

- 제 1 특 시      이사 60,1-6
- 회    답    송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 제 2 특 시      에페 3,2.3-5-6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 복            음      마태 2,1-12
- 영    성    제    송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느님의 종 최양입 토마스 신부의 시집집

열두 번째 시집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착하신 목자 감사(Capsa) 명의의 베르뇌(Berneux) 장(張) 주교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일찍이 큰 서원으로 갈망하였으나, 그 갈망이 실망으로 변하여 잊어버린 지 벌써 오래된 주교님을 하느님의 무한하신 자비로 마침내 우리 안에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장 주교님께서 새 선교사 두 분을 우리의 새로운 협조자로 동반하고 오셨으니 한층 더 기쁩니다. 원컨대 그렇게 엄청난 자비를 베푸시는 하느님 앞에 우리가 부당한 자들로 여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1854년 9월에 신부님께 보내드린 저의 서한에서 제가 신부님의 편지와 성물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존경하올 우리 장 주교님이 오시는 편에 신부님의 회답이 없어서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혹시 저의 서한이 신부님께 전달되지 못하였는지요?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요?

그런데 경애하올 바랑 지도자 신부님의 선종 소식을 듣고 참으로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 앞에 매우 부당한 기도이지만, 저의 기도 중에 바랑 신부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되어 저 세상에 계시는 바랑 신부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못지않게 우리 가련한 포교지를 보살펴 주시는 관리자가 되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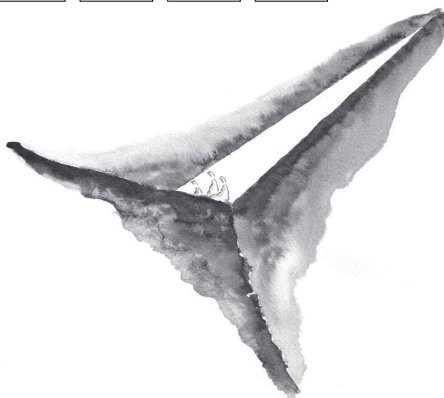
금년에는 하느님 자비의 허락하심으로 사목 순방을 별탈없이 꽤 평온하게 무사히 마쳤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고기잡이 그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려 180명이 넘는 어른이 거룩한 샘터에서 몸을 씻고 그리스도의 양무리에 스스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을 가로막으려고 기를 쓰고 계속 소란을 피워 대는 사탄의 난동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전라도의 진밭들이라는 마을로 갔는데, 그곳은 얼마 전부터 거의 마을 전체가 교리를 배우며 세례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례받을 준비를 다 마치고 선교사 신부님이 오기만 초조하게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하느님의 종 최양입 토마스 신부의 시집집』 발췌, 청주교구 양입교회시연구소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빛을 봅니다.

어둠의 자리에서.  
막막한 현실에서.  
절망의 끝에서.

그 빛을 봅니다.  
그곳에서.

빛을, 기적을  
기다리는 이들이.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동방박사들의 경배



실제 금박과 보석을 사용하여 표면 및 그림이 장식된 이 그림은 여러 가지 스토리가 결합된 작품으로, 상단 가장 왼쪽에는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목격하는 장면이, 중앙에는 헤로데궁을 방문하는 것이(헤로데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린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는 지시를 한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 상단에는 동방박사들과 그 일행이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동방박사가 성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장면이 그림의 전면에 보이는 장면이다.

젠틸레 다 피트리아노(1370년 ~ 1427년), 1423년 제작  
피넬 위 탬페리화, 203 × 282cm / 우피치 갤러리, 이탈리아 피렌체

동방에서 온 이국적인 인물들로 알려진 동방박사들답게 그들의 의복과 말을 장식한 소품 및 외국의 동물(아프리카의 치타 및 원숭이 등)들로 가득 차 있는 이 그림은 동시대인들을 압도하는 작품이었다.

동방박사 중 가장 나이 많은 동방박사는 예수님 앞에 왕관을 내려놓은 채로, 무릎을 꿇고 예수님 발에 입맞추며 경배를 드리고 있다. 아기 예수님은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동방박사의 벗겨진 머리를 축복하듯이 만지고 계시며, 성모님 뒤의 여인들이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귀한 선물들을 살펴보고 있다. 그 옆에는 차레를 기다리는 동방박사들이 보이고, 맨 오른쪽 동방박사의 시중은 그의 신발을 벗는 것을 돕고 있는데, 여기 보이는 금장식은 실제 금장식이기도 하다.

김은혜(엘리사벳)



그림 상단 왼쪽, 하늘의 별을 발견하는 동방박사들



그림 상단 오른쪽,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동방박사와 그 일행들 맨 오른쪽 동방박사의 시중



교 구 소 식

군중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주님 공현 대축일: 은하수 이창훈 신부

◆ 교구장 동정

- 백운(제56사단) 성당 사목방문  
때: 1월 7일(주일)

- 2024년 사제 피정  
때·곳: 1월 8일(월) ~ 12일(금), 수원교구, 영성교육원

- 군중후원회 신년미사  
때·곳: 1월 8일(월) 15:00,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화해와 기쁨을 위한 고해성사의 해” -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1요한 1,9)